

크레이그 키너 박사, 마태복음, 강의 17, 마태복음 24-25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7회, 마태복음 24-25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멸망으로 이끄는 더러움을 보면 도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애국자들은 서기 66년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학살했습니다. 이를 겪으며 실제로 그 당시 전쟁에 참여했던 요세푸스는 그것이 결국 멸망을 초래한 모독이었다고 믿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3년 반 후에 헐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보면 도망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크에 있습니다. 이를 더욱 명확하게 만든 사람도 Luke입니다.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된 것을 보면 도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다가오면 시골 사람들은 군대가 지나갈 것을 바라며 도시로 도망쳤고, 포위 공격이 닥치면 군대가 지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지혜를 주셨습니다. 글쎄, 군대가 지나갈 때 시골에 머물 수는 없지만 도시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티레를 포위했던 것처럼 로마가 포위하는 것을 끝낼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료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언덕에서는 더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은 산간지대에 있었고 그곳은 도망가기에 전략적인 장소였습니다. 많은 좁은 산길과 엄청난 수의 군대는 그곳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일렬로 이동해야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고 길에서 그들을 밀어내는 등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Maccabees는 또한 산에서 게릴라전을 연습했기 때문에 이치에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도망가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는 서두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집 옥상에 있으면 집 밖으로 물건을 가져가려고 내려오지 마십시오. 글썄요, 그 당시에는 평평한 지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옥상에서 채소를 말리고 지붕 위에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옥상이나 다른 곳에서 이웃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계단을 통해 지붕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럴 여유가 없으면 지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집 안에는 지붕으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서 도망치면 밖으로 나오곤 했어요. 집 안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도망가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떠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얻으러 집에 들어갈 시간조차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서두르는 일에 대한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들에 있는 사람은 겹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십시오. 글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잤던 겹옷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매우 가난하다면 담요나 침낭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모든 마을에서 모든, 우연히 들판이 있는 부지에 살고 있다면 그냥 밖으로 나가든, 서늘한 아침에 들판으로 나갈 때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밭일을 하는 정오가 되면 해가 뜨거워지므로 실제로 정오에는 그늘로 들어가 햇빛을 피해 낮잠을 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오가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망토를 들판 가장자리에 두곤 했습니다. 그들은 바깥 망토를 입고 계속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옷이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밤에 잠을 잘 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추울 때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신명기에서 채권자가 압수할 수 없는 유일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밤새도록 채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버리라.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면 즉시 도망치십시오.

제 아내는 자신의 나라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 몇 번이나 난민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난민이 된 지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는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 중 일부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특히 가족 중 건장하고 강한 남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전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도망갔습니다.

전투가 그 지역에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폭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들이 떠났기 때문에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아내와 언니들, 그리고 노모였지만 노아버지를 업고 갈 수 없어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반쯤 마비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떠나길 원하시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아멘이라고 말한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그들이 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수레에 태웠고 이 남자가 수레를 밀고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사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뒤에서 불타는 도시의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서둘러 도망쳐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갈지, 무엇을 버릴지 결정할 시간이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여권을 가져갔는데, 많은 난민들은 여권 없이는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애초에 여권이 있으면 여권을 가져가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급히 도망쳤고, 어떤 사람들은 연로한 친척들을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뒤에 남겨졌습니다. 내 아내는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고, 머리에 다른 물건들도 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인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난민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다른 여성들, 특히 임산부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여자들에게 똑같은 동정심을 갖고 계십니다.

임신한 자들이나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사람은 사망, 출혈, 유산 등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들 자신의 건강도 손상되어 빨리 도망가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우리가 유대 문학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아이들을 잃은 것을 애도하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닐 충분한 음식이 없을 때, 유아들은 기아나 영양실조로 죽기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을 보면 어린이의 절반이 성인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 가장 많은 수가 유아기에 사망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일부 어머니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실제로 자기

자녀를 죽여 먹었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성문이 닫힐 것이었습니다.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오직 제자들만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추종자들만이 그 심각성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다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20절에도 너희의 도피함이 겨울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은 바다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지에서도 여행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겨울은 여행하기 너무 어려워서 군대도 쉬었습니다. 특히 산간 지방에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눈이 내리는 유대 구릉지에도 있습니다. 또한 유대에서는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에는 강이 범람하는 경우가 많아 건너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계절 동안 물로 채워지는 마른 와디나 마른 개울 바닥이 있어서 여행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Josephus는 실제로 이때가 겨울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때는 봄이었지만 요단강은 여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난민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도망쳐 나온 도망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 도망치려던 유대 사람들은 요단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 강을 건너려고 했으나 물이 너무 높아서 그들과 함께 있는 어린 아이들 중 몇 사람이 물에 빠질까 두려워 그 밤에는 감히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그 길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침 햇살 속에서 로마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아 학살했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의 종들에게 다가올 우박에 대해 경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는 연민을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였고, 그 결과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서두르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즉각성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도망쳐야 했습니다. 68년 봄 이후 로마군에게 도망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처음에 유대인 혁명가가 도시를 점령했을 때, 일단 도시를 장악하고 성벽을 장악하면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혁명가들이 '아니, 우리는 함께 있다'고 해서 나갈 수 없었다. 당신은 우리 편이 아니면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도시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성문에 있는 경비병들을 피해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요하난 벤 제카이(Yochanan ben Zekai)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와 그의 제자들은 도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죽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그들은 그를 데리고 나갔고 경비원들은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건 시체야. 우리는 거룩한 성 안에 시체를 남겨 둘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도시를 모독합니다.

경비원들은 도시에 시체가 많았지만 그를 내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에서 충분히 멀어지자마자 요하난은 들것에서 뛰어내렸고 그와 그의 제자들은 도망쳐 로마인들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인들에게 항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군단병이 현지에서 모집되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보조원은 현지에서 모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둔한 수많은 로마 군대와 그들을 위해 일하는 시리아 보조군도 많이 있었습니다.

Josephus는 필요 이상으로 로마인을 모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로마인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로마 후원자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이러한 시리아 신병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리아 보조군 사이에 예루살렘을 탈출한 예루살렘 사람들 중 일부가 탈출한 후 스스로 삶을 꾸려 나가기 위해 보석을 삼켰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보석을 삼켰다가 나중에 처음 탈출할 때 수색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변 후에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보조 신병들은 이 사람들이 보석을 삼켰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탈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조원들에게 붙잡혀 몸을 쪼개어 그 안에 보석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서 예루살렘을 탈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안에 있던 몇몇 선지자들, 즉 기독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도망하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망쳤는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산간 지방으로 갈 필요는 없었지만 요르단 계곡을 따라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도망하여 다른 산간 지방인 데가폴리스에 있는 펠라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성전 부지에서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산 채로 불태워진 후, 성전 부지에 로마인들은 그들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표준에는 로마 황제의 휘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의 이미지를 지녔습니다. 그들은 사해사본에서 우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실, 일찍이 총독으로서 빌라도가 한 첫 번째 행동은 밤에 이 깃발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다고 요세푸스는 말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일어나 이 깃발들을 보고 말하되, 이 우상들을 우리 거룩한 성에서 가져가라.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목을 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우상들이 우리의 거룩한 성을 더럽히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는 성전터에 세워졌고 성전터에서는 신으로서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황폐와 관련된 모독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분은 큰 환난에 관해 다니엘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가올 심판, 곧 성전에 대한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오심에 대해서도 말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분이 즉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면 하늘도 이를 선포할 것입니다(23-28절).

그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독수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어에는 독수리가 포함됩니다. 더 넓은 의미의 용어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참고 문헌에서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39장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학에도 시체가 흩어져 있는 전쟁터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개들이 와서 잔치를 벌이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이 시체를 잔치하며 때로는 다른 곳에서 살점을 떨어뜨립니다. 전쟁에 대한 매우 기괴한 묘사.

그리고 구약성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윗은 골리앗에게 네 몸을 공중의 새들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시의 영향은 우주적일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표적을 볼 때에 그는 해와 달 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시골에 와서 '나는 예수입니다. 돌아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이 정말 예수인지 아닌지에 대해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그가 우주적으로 오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30절에서 나라들은 다시 구약의 언어를 사용하여 공포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을 디스크로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구체로 보았지만 만약 그것이 원반이라면 그 위에 천국의 돔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마가복음에서는 하늘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가 더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또한 끝이 아닌 몇 가지 것들을 주십니다. 70년에 성취될 사건들과 종말 외에 예수님께서서는 종말에 대한 몇 가지 비-징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에 많은 예언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 너희가 이것저것을 보면,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은 종말의 징조이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열거하신 많은 표적을 열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돌연변이 아기와 같은 몇 가지 다른 것들도 나열했습니다. 우리 나라 슈퍼마켓의 타블로이드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4절 4절과 5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에서 전쟁에 관한 소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6절과 8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고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다른 교사들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글쎄,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종말의 징조입니다. 글쎄요, 그러한 일들은 이미 1세기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1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해서 끝이 다가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400년대에 포르투갈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더 거대했습니다. 역병이나 역병의 관점에서 볼 때,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유럽의 약 3분의 1을 죽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1300년대와 1400년대 유럽에서는 유럽의 1/3에 달하는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건 확실히 전쟁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전쟁의 소문이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일은 역사 전반에 걸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일을 본다고 해서 아직 끝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언 교사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종말에 대해 다른 신호를 주십니다.

그는 종말을 위한 전제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가 말하는 어떤 것에는 끝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어서 이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통치의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글쎄요, 그가 우리에게 맡긴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서둘러야 할까요? 문맥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소식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 민족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이방인의 총명한 수가 들어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각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서 나온 대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왕국은 이미 왔고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의 왕국에 관한 좋은 소식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바울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가르침을 적용합니다.

저는 복음의 신뢰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예수의 말씀 중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존했는지 언급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는 단지 무작위적인 예언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말은, 비록 바울이 글을 쓸 때까지 평균 100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 수백 개의 가정교회 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한 대로 가면 예배당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말하지만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런 일을 갖고 있고 매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만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됩니다. 글썄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만 예루살렘 신자 5,000명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집집으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을 차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는 이미 적어도 100개의 가정 회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글을 쓸 무렵에는 우리는 수천, 수만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 말에는 평균 100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해도 아마도 백만 개의 예언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토록 겹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토록 겹치는 특정한 예언에 그토록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그가 거기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아마도 누군가가 준 특별한 예언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가 준 특정한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 자신의 예언, 주님 자신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그는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친 것들입니다. 그건 그렇고, 일부 학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데살로니가후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70년 이후에 이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세워졌다는 것에 대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보통 그 사람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합니다.

Pseudepigraphic 문자는 일반적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글썬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둘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을 많이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유대 문학의 다른 곳에서는 종말의 징조 등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이것들과 겹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에 함께 배열되어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의 두 문단과 데살로니가후서의 한 문단에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다른 유대인 가르침의

레퍼토리를 사용하더라도 우연히 겹칩니다. 내 생각에 여기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과 다른 곳의 예수의 다른 가르침, 그리고 신약성경의 가장 초기 부분일 수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내용 사이의 명확한 유사점을 시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가 두 번째로 이른 기록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신약성서의 초기 부분으로, 아마도 부활 후 20년 이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마태복음 24:24).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도 있습니다. 배교와 불법의 종말,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해산의 시작이 있고, 로마서 8:22에 해산의 진통이 있으며,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마지막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성전.

또한 당신은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서 경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데살로니가후서 2장).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와 시기를 당신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다른 가르침들과 함께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마태복음 24장의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임재 또는 오심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울리는 왕의 강림, 왕이나 고관의 강림을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글쎄,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여 종종 그러한 모임과 결합되었던 또 다른 단어인 apontasis 와 결합시켰습니다. 왕이나 고관이 어떤 도시에 오면 그 도시의 사신이 그 사람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도시로 가는 길에 있는 사람의 아폰타시스, 만남, 호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마태복음 24:30).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분은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24:31 그분께서는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신자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는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천사장의 음성으로 나팔소리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그는 나팔소리로 모으십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그는 그것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는데, 아직 기록되지 않은 계시의 나팔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최후를 모으는 나팔을 생각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43,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재림에 관한 고대 유대 문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는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2. 그는 밤에 도둑처럼 오느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 요한계시록 16장, 베드로후서 3장 등에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셨다고 암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약성서에서 확인된 예수님의 초기 말씀 중 일부와 마찬가지로 확인된 이러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유대교에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많이 있었지만 바울은 예수께서 가르친 주제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전하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가르침으로 이전 교사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데 사용된 언어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의 가장 초기의 편지들은 예수께서 우리가 복음서에 기록한 방식으로 종말에 관해 말씀하셨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환난 직후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신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휴거되거나 끌어 올려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휴거(Rapture)는 따라잡다(Catch up)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따온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려가는 것에 대해. 만남이라는 용어를 평소대로 사용한다면, 지구로 가는 길에 그의 호위를 받고 내려오는 길에

그를 만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고 말합니다.

고대에는 나팔소리와 함께 외치는 소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의 함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묘사하신 모독 이후, 즉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재림 이후의 재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재림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점에서 시청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다루려고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지닌 사람들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기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초기 교회 교부들 대부분은 미래의 천년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Justin Martyr, Papias, Irenaeus는 모두 이것을 믿었습니다.

후기 세기에, 특히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지배적이 된 것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큰 환란에 처해 있거나 곧 겪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는 천년 기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교회는 우리가 환란을 겪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밀레니엄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배적인 견해가 되었습니다. 유세비우스 시대에는 확실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전천년설주의자들이 있었지만 다른 이단자들과 달리 그들은 이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의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시점에서의 무천년설의 형태는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지 않고 콘스탄틴 시대쯤에 시작되었지만.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후천년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왕국을 세운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천년왕국이 시작된 지 천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종 심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왔나 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이후 교회를 통해 몇 가지 다른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후천년설, 즉 우리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본문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왕국의 좋은 소식이 모든 곳에서 전파될 때, 그것을 모든 곳에서 전파한다고 해서 우리가 왕국을 전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곳곳에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대각성 운동의 많은 지도자들이 가졌던 지배적인 견해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Charles Finney, 이 사람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800년대 미국에서, 적어도 남북전쟁 전까지, 그리고 남북전쟁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국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지배적인 견해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830년경, 존 넬슨 다비(John Nelson Darby)라는 영국 사상가가 일종의 세대주의를 생각해 냈습니다.

그의 세대주의는 오늘날 진보적인 세대주의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세대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Darby는 하나님은 유대인과 교회를 동시에 다루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 환난 동안 이스라엘을 다루기 전에 교회는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회는 천년기 이전에 마지막 환난을 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환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견해가 왜 대중화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Schofield Reference Bible에 의해 전파되었고 당시 널리 대중화되었습니다.

1830년까지는 누구도 환난 전에 따라잡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환난 중에 있다고 믿었거나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교회 역사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장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많은 부분에서 교회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교회는 여전히 이것을 따라잡는 일은 재림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7년 동안 하늘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히 다스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예수님의 오심과 우리가 그에게로 모이는 것에 관해 말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어에서는 아마도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로 모이는 일과 이 일이 주의 날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주의 날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의 임박한 날입니다.

2 베드로도 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무너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라. 그는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환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주의 날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 하나님 보좌에 앉기까지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분명히 환난에 관해 말하고 있지만 당신은 그 전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성도들을 공개적으로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고난에서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도적같이 따라가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모든 구절을 보면, 그가 도적 같이 온다고 말하는 모든 구절, 문맥상 뜻하지 않게 온다는 말씀을 보면 문맥상 읽어보세요.

그 구절들은 모두 종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지 7년이나 3년 반 전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대중적인 견해는 예수께서 마지막 환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회를 데리고 나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인기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추측으로는 이 시리즈의 다른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 동료 중 일부도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견해를 가지지 않고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난은 아마도 오래 전에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느 누구도 1830년까지 재림의 두 가지 다른 단계에 대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에 대해 경고하려고 의도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관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고난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세계 여러 지역의 교회는 오랫동안 그런 일들을 겪어 왔습니다. 나는 수십 년 전 중국 교회가 마오쩌둥 시대 홍위병의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교단의 본부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중국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만나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며 큰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당신이 휴거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가르쳐 줄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두가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특정 집단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존 넬슨 다비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 이 휴거를 붙잡든 안 붙잡든,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통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너희 몸을 죽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너희에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영혼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진정한 삶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역사 전반에 걸쳐 그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에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원래 그런 견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성경 40장을 읽으면서 매주 신약을 통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문맥상 실제로 그런 말을 한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셨는데 초청전도사가 저를 따로 데리고 가서 '아니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했습니다. 좋아요, 글썄요, 저는 단지 새로운 기독교인이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나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남자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 또는 모든 하나님의 여자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마도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 중 대다수는 그것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후에 나는 다시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짓을 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경전을 탐구하고 스스로 경전을 찾는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경전을 탐구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면 내가 그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누가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베뢰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의 많은 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인식할 수 있었던 이유이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이 특별한 가르침에 대해 나와 동의하는지 여부는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 성경에 어떻게 접근하는지 생각하도록 당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직접 읽어보세요.

그것이 두 개의 개별적인 사건, 미래에 있을 두 개의 개별적인 예수님의 재림, 또는 두 개의 개별적인 단계에 대해 정말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구절에서 그런 내용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도 있습니다.

스스로 경전을 찾아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권위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바댜는 동굴에서 선지자 백 명을 쳤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예언을 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즉 신약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1세기에 주어진 모든 예언들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경은 척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캐논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시에 대한 다른 모든 주장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었던 것과 같은 정신이 아닌 것을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영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 줍니다.

음, 그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항상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될 필요는 없지만 권위에 대한 공통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말을 들으면서 때로 우리는 경전을 찾아보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며 종종 우리가 배운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배운 것 중 일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전통의 형제 자매 중 일부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통을 바꾸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자로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단지 "글쎄요, 이것은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세요, 우리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살지 않고 있고 나는 그들이 경건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는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시대의 주요 예언 인물에게 그것이 그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해석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대에는 어떤 면에서 상황이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다시 경전으로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전공은 전공으로, 부전공은 부전공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갈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원본에는 장 나누기가 없으며, 이는 마태복음 25장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앞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서는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이 큰 화를 당할 것이라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종은 주인이 없을 동안 동료 종들을 돌보며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때를 따라 마실 것을 주게 하였느니라. 주인은 종이 모르는 때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종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동료 종들을 돌보기는커녕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며 그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예수께서는 그가 와서 그 종을 쫓개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토막내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처벌로 간주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는 동료 종들의 종으로서 그 위치를 취해야 합니다.

목사는 양의 목자이다. 에스겔 34장에서 그는 이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면, 우리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데 그 직분을 사용합시다. 왜냐하면 그들과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초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비유입니다. 10명의 처녀와 10명의 신부 들러리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신랑집에서 신부집까지 행렬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햇불은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보통 햇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아스(Joachim Jeremias)는 현대 시대 팔레스타인 마을에서 이것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이야기합니다.

더 최근 정보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고대에는 고대 자원을 조사해 보았는데 중성 햇불은 고대 지중해 세계 전체에서 표준이었습니다.

고대문학 곳곳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켜고, 햇불을 켜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당시에는 램프가 그런 의미였죠.

일반적으로 햇불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은 그랬습니다. 신부 들러리가 된 것은 큰 영광이었습니다.

영망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신부 들러리는 일반적으로 예쁘고 어린 처녀들이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은 종종 1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어린 십대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신부의 친구이고 스스로 신부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글썬, 만약 그들이 공동체 전체 앞에서 영망이 된다면 남편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종종 마을 전체가 결혼식에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결혼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글썬, 신부가 올 때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신부를 데리러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글썬, 그들은 행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5명은 참가할 수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된 5명은 참가가 불가능했습니다.

너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 혼인 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것입니다.

7일 동안의 잔치 기간 동안 모든 사람이 그곳에 모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당신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글썬, 분명히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인의 공식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그는 그들을 아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잔치에서 영원히 추방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10대 소녀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공포와 수치의 이미지입니다. 예수께서는 청중 중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없는 인물을 기꺼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단지 엘리트들이 동일시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그랬기를 바라는 엘리트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이너스(minus)에 관한 것과 비슷합니다.

나 자신도 같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주제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비유는 왕국을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글쎄요,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국을 갖기 위해 로마로 가야 했고, 그의 권위가 그에게 확증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르켈라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자본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투자하고 빌려주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진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출을 받고 이자를 돌려받음으로써 수입을 두 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 종은 수입을 투자하고 두 배로 늘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그들에 대해 매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득이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이 게으른 하인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땅 속에 숨겼고 그는 그것을 냅킨이나 천에 싸서 땅 속에 숨겼습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땅에 숨기지 않습니다. 내 말은, 적어도 땅 속에 숨길 거라면 튼튼한 상자를 사용하되, 천에 싸서 땅속에 숨겨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는 당신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 어떤 하인도 주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욕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것을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당신이 너무 못되게 굴어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모욕이었습니다. 내 말은, 우리 문화에서는 종종 그런 식으로 읽지 않지만, 그 문화에서는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핑계로 주인을 모욕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이것으로 돈을 벌기를 정말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못됐기 때문에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주는 것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글썄, 그는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이든, 그가 우리에게 준 경제적 자원이 무엇이든 그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왕국의 발전을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자원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양과 염소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왕과 재판관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는 신성합니다. 양은 염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양을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염소를 나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염소도 종종 반항적이었지만 양은 매우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소보다 양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양을 자신의 오른편으로, 염소를 왼편으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선호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왼손잡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왼쪽보다 오른쪽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면 이들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로서 상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글썄,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작은 자들은 심판 받는 자들에게 영접을 받고, 심판 받는 자들에게 먹을 것과 등등을 받는 형제들입니다. 견해 중 하나는 이들 중 가장 작은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갖고 있던 견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관해 많은 것을 가르치는 나의 정말 좋은 친구 Ronald Sider가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의 견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Ron과 나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아마도 선교사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신약성서 학자들도 이 단어가 선교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사란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 이해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 나가는 마태복음 10장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를 위해 기꺼이 문화적 경계를 넘고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다른 구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잠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말하기를, 너희가 이 가난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를 위한 것이니라. 글썄요, 그게 사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에 관해 신학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에 실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특정 구절에 대한 주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예수의 형제자매들은 누구입니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을 지적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와 자매들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adelphos가 복수형으로 사용될 때 그룹에 남성이 있으면 남성형을 사용하지만 여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어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다른 곳에는 그의 형제자매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23장 8절,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오직 하나이시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28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무덤 속의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은 나를 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배가 고팠을까요?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어느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합당한 자를 찾아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너는 그 집에서나 그 동네에서 나갈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그래서 그들은 환대에 의존해야 했고 그들이 올 때 배고프고 목마를 수도 있지만 당신은 그들을 돌보고 환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심판 날에 여러분도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코스를 하고 있는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아, 그러니 당신이 이 중 가장 작은 것까지 해 준 것은 나에게 해 준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 제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10시 40분부터 42시까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기 위해 집을 떠날 때 우리는 여러 장소로 이동합니다.

이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가능하지만 메시지에 접근할 수 없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음의 사자들이 주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그 메시지가 전하는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옷이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을 겪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아플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아픈 사람들이나 당신이 좋아했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대로 그들을 방문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방문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메신저를 받는 것은 또한 메시지를 받는 것을 수반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나라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으니까?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그들은 좋은 소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좋은 소식을 받아들였는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그것이 심판 날에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오기 전에 왕국의 좋은 소식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7회, 마태복음 24-25장입니다.